



문화적 편향이 기후변화 정책 순응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

위험인식, 감정, 효능감의 매개 효과 중심 분석*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문화적 편향과 위험인식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지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토하는 데 있다. 특히 문화적 편향과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유발하는 부정적 감정의 역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지지에 대한 감정과 인지변인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문화적 편향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정책순응은 차이를 보였는데, 평등주의가 클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감소하고 정책순응은 높아졌다. 또한, 운명주의가 클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정책순응은 감소했다. 부정적 감정은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효능감을 증대시켜 정책순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험의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적 편향과 위험인식을 관련지어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지지에 대한 감정의 역할과 함께 인지 변인의 역할을 검증한 실증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둘러싼 한국인의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정책 순응과 지지를 위한 전략적 PR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연구의 실용적 함의가 있다.

핵심어: 문화적 편향, 기후변화 위험인식, 정책순응, 감정, 효능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015).

** sjinkim@ewha.ac.kr, 주저자

*** kimyw@ewha.ac.kr, 교신저자

1. 서론 및 문제 제기

과거에는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 불가능한 자연환경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현대사회의 위험은 과학과 기술문명의 발전과 이로 인해 변화된 삶으로부터 비롯된 부작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든스가 지목한 '제조된 위험(manufactured risk)' 이 바로 그것이다. 제조된 위험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 환경적 위험이다(Beck, 1992, 2009; Giddens, 1999).

기후변화는 전 세계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는 매우 복잡한 위험이다(Swim et al., 2011). 문제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지나치게 춥기 때문에 일상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단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순환을 방해하고 지역 및 기후에서 심각한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셰퍼드(Sheppard, 2005)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인식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 행동 또는 예방 행동을 하기에 여전히 역부족이며 또한 기후변화를 인지하는 것과 예방 행동 간에는 매우 큰 간극이 있음을 주장했다. 일부 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의 부족, 그 자체가 큰 문제임을 지적하기도 했다(Leiserowitz, 2006; Lorenzoni & Pidgeon, 2006).

기후변화는 평균 기후 상태가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정확히 관찰하고 추적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상이다(Weber, 2010). 게다가 기후변화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학자, 산업계, 정책입안자, 비영리단체 등 다수의 집단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결과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힘든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Anderson, 2009).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 음식 또는 핵발전과 같은 생태 환경적 위험 이슈보다 기후변화 이슈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oortinga & Pidgeon, 2003). 다른 생태 환경적 위험 이슈에 비해 기후변화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기후변화는 다른 건강, 경제, 교육 등의 문제에 비해 즉각적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체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심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는 자신과는 관련성이 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매우 '꿀치 아픈(wicked)' 특성을 지닌다는 학자들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Lorenzoni, Jones, & Turnpenny, 2007).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이슈에서는 사람들의 비현실적인 낙관(Weinstein, 1980)이 발휘되기도 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내게 있어 기후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덜 심각하고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Lowe et al., 2006).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데에는 인위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세부 원인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증가하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방출이 특별한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계적 가능성 안에서만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는 매우 제한적 원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O'Neil & Nicholson-Cole, 2009). 몇몇 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대응정책에 대한 참여가 낮은 이유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 관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Lorenzoni, Nicholson-Cole, & Whitmarsh, 2007; Roeser, 2012).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기후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경종을 울리는 이슈인가에 대한 의미부여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특별한 감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를 위한 어떤 행위에 돌입하기 위해 동기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Leiserowitz, 2006; Lorenzoni, Nicholson-Cole, & Whitmarsh, 2007; Lorenzoni & Pidgeon, 2006).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늘 접하는 언론 보도와도 관련이 있다. 미디어가 이슈로 선점하는 뉴스 중에서 건강이나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두려움, 위험이나 경고 없이 지나가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고 할 만큼 우리는 언론을 통해 다양한 위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있다(Calman, 2001). 특히 기후변화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또는, 관심이 부족한 과학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언론의 시각과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Dunwoody, 1999; Nelkin, 1995). 자오, 라이체로비츠, 마이바흐와 로저리누프(Zhao, Leiserowitz, Maibach, & Roser-Renouf, 2011)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 환경뉴스에 대한 집중은 좀 더 정확한 과학기반의 신념과 높은 위험인식과 관련이 있는 반면 정치적 뉴스에 대한 신념은 덜 정확한 과학기반 신념과 낮은 위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전문가와 일반 시민 사이의 매개자로서 언론의 역할은 지대한테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 등에 대한 언론매체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해당 사안의 중요성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워짐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과 달리 기후변화 회의론이나 부정론에 대한 보도가 별로 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보도가 적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자체의 부재로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고 보도 자체가 적다 보니 기후변화 회의론이나 부정론에 대한 논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윤순진, 2016). 이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부족한 점 또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또는 예방행동의 차원에서 함의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현철·조성검·김학수, 2009; 노성종·이완수, 2013; 유명순·윤혜정·천진희·주영기, 2017; 임인재·박성철·이덕환, 2013; 주영기, 2013).

한국경제연구원(2015)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9%를 차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지난 100년(1912~2010년)간 6대 도시 평균기온이 1.7°C 상승했으며, 강우량은 19% 증가했고, 해수면(1964~2006년)은 8cm 상승했다. 이로 인해 폭염, 열대성 질환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대성 어종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풍수해 피해액이 10년마다 3.2배씩 증가하고 있다(환경부, 2010).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모두 한국 또한 기후변화의 사각지대가 아니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개인차원에서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실천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다(김서용·김선희, 2016). 그러나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이슈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순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서양에서는 기후변화 회의론자와 부정론자의 출현, 기후변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음모설 등 사회적 문제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기후변화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관심을 받아왔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르다(Kim & Wolinsky-Nahmias, 2014). 슬로빅(Slovic, 199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험”이라는 관념은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Slovic, 1992, p. 690). 현존하는 위험인식 관련 이론들은 개인의 위험인식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구조를 간과해 온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Jackson, Allum, & Gaskell, 2006; Van der Linden, 2015), 이 점에서 위험인식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접근은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기후변화 정책 지지와 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인의 문화적 편향을 검토할 수 있는 위험의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위험의 문화이론은 서로 다른 사회적 관계가 그 관계와 어울리는 문화적 편향을 양산하고, 그러한 문화적 편향은 위험의 기준을 판단하고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Douglas & Wildavsky, 1982). 위험 그 자체가 아닌 사회적 조직이 그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그 위험을 다루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양

산된 이득과 혜택 그리고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가 위험을 결정한다는 것이다(McMeeley & Lazrus, 2014).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정부 정책의 근원으로 위험의 문화이론의 유용성이 제시되기도 했고,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정치 성향, 이데올로기 또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보다 문화적 편향이 특정 정책 선호와 지지에 대한 강력한 변인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다(Leiserowiz, 2006; Pendergraft, 1998).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정책지지와 순응에 대한 문화적 편향의 관련성을 검토함에 있어 위험인식과 감정, 효능감의 역할도 알아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대해 많이 알수록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유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감과 효능감을 높게 하며(Milfont, 2012), 효능감은 친환경적 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Heath & Gifford, 2002; Kaiser & Gutscher, 2003)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지지에 대한 감정과 효능감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위험의 문화이론(Cultural theory of risk)

위험의 문화이론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기술적 재해 등의 위험에 대해 갖는 인식을 사회 문화적 인 영향력과 관련하여 설명한다(Douglas & Wildavsky, 1982). 이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 안에서 행동하고 집단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위험은 무시하고, 다른 것은 강조한다고 설명하며 환경과 위험을 사회적 구성물로서 인식한다. 어떤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문화적 렌즈 또는 문화적 필터나 세계관을 사용하여 모든 현상과 관련 환경을 바라보며, 문화적 시선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문화이론의 요지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문화 개념을 명목적으로 정의하는 차원에만 머물렀다면, 위험의 문화이론은 문화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즉 기존의 문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의 생성과 관련하여, 특정 사회적 맥락마다 고유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고 이에 상응하는 문화편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류학자인 매리 도글라스의 연구에서 탄생한 문화이론은 개인과 집단이 바라보는 세상은 매우 다르고 차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 정형화된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위험인식과 행동에 있어 사회적 가치와 세계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세계관이란 세상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태도를 일컫는 것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개인의

반응을 이끄는 “기질적 성향(orienting dispositions)”이다(Dake & Wildavsky, 1991).

위험의 문화이론에 따르면 세계관 또는 문화적 편향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문화적 편향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된다. 여기서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는 망(grid)과 집단(group)의 차원에서 결정되는데 ‘망(grid)’은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호나 결정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역할, 성별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하는 범위이다. ‘집단(group)’은 “우리” 또는 “그들”과 같은 관계양상이 나타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차원은 상호작용하여 4개의 관계양상을 생성하는데 그것이 위계주의자, 운명주의자, 개인주의자와 평등주의자라는 4개의 사회적 관계유형이다(Peters & Slovic, 1996, p.1430).

위계주의자, 개인주의자, 평등주의자와 운명주의자는 그들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저마다 다른 정의를 내린다. 그러므로 각각의 문화적 편향은 상이한 ‘합리성(rationality)’을 반영하는데 이 합리성은 개별 집단이 위험을 저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선호하게끔 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특성에 대한 일련의 전제를 뜻한다. 즉 위계주의자, 개인주의자, 평등주의자, 운명주의자로 정의된 4개의 사회적 관계유형이 인지하는 위험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특성 또한 다르고 따라서 차별화된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위계주의자들은 현 상태 구조를 위협하는 사회적 일탈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를 요구한다. 전형적인 개인주의자들은 정부 통제와 같이 그들의 자치를 위협하는 규제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개인적 이득을 위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 기반의 전략을 추진하며 ‘보이지 않는 손’, 즉 자기 이득적인 행위자가 그들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기 때문에 최적화된 사회적 결과를 얻는다고 믿는다. 위계주의자와 개인주의자는 모두 기술을 옹호하는데 이는 기술이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통제 또는 개인의 효능감을 제공하는 등 상당히 도구적으로 간주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평등주의자는 위험 비용과 혜택의 분배에 있어 불공정함, 사회적 일탈과 다양성을 인내할 것인가 부추길 것인가 걱정하며 기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이들은 참여, 민주주의와 모든 관련 대상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합의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지향한다(Dake & Wildavsky, 1991; Dake, 1991, 1992; Milton, 1996; O’Riordan & Jordan, 1999; Pendergraft, 1998; Slovic & Peters, 1998; Steg & Sievers, 2000). 위험의 문화이론은 운명주의와 특정 위험 간의 관계를 가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운명주의가 강한 사회적 규제와 집단에 대한 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나경 ·

임혜숙·이영애, 2008). 운명주의자들은 위험에 대해 무관심하며, 위험에 대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믿는다.

논의를 통하여 보면 4가지 문화적 편향 또는 세계관은 특정 위험은 더 위험하거나 덜 위험하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위험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한국인의 문화적 편향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문화이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응축할 수 있다. 첫째, 이 접근은 맥락 변수의 범위를 사회문화적인 차원으로 확장하여 사회가 가진 계층성이나 집단성에 따라서 사회조직문화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즉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구성되며 이러한 집단들은 사회 내에서 특정 위치를 구축하게 되며 그들의 위치나 속성에 따라 특정한 조직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문화이론적 접근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는 구성원들이 위험을 인식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Douglas & Wildavsky, 1982; Rayner & Cantor, 1987; Thompson, 1980).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상반된 의견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Hornsey, Harris, Bain, & Fielding, 2016; Huxster, Carmichael, & Brulle, 2015; Kahan, Jenkins-Smith, & Braman, 2011; Unsworth & Fielding, 2014).

기술적이고 환경적인 위험은 평등주의자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권위에 대한 위험은 위계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며 투자 실패와 같은 마켓 운용은 개인주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것이다(Dake, 1991; Wildavsky & Dake, 1990). 그러나 다양한 위해와 관련한 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적 편향의 설명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Sjoberg, 1996).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평등주의자들은 대부분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며 위해(harm) 차원에서 기술적 위험을 바라보기도 한다. 반면 개인주의자들은 그 위험을 통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다. 위계주의자들은 기술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며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위해와 혜택을 명쾌히 가늠한다(Palmer, 1996).

문화적 편향은 환경 의식(consciousness)과 환경에 대한 우려와도 관련이 있다. 카한과 동료들(Kahan et al., 2011)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위계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이들은 환경 위험에 회의적인 반면 평등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기후변화 발생에 대해 동의한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성향과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평등주의자들은 환경주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개인주의자들은 환경주의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Ellis & Thompson, 1997; Grendstad & Selle, 2018). 위계주의자와 환경주의 간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엘리스와 톰슨은 위계주의는 환경주의와 극미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한 반면 그렌드스태드와 셀리(Grendstad & Selle, 2018)는 위계주의와 환경주의 간에는 어느 정도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는 어떤 이슈에 있어 개인주의자에 속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는 개인주의자가 아닌 다른 유형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위험의 문화이론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편향은 환경위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지만 문화적 편향과 기후변화 위험인식의 관련성을 검토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다.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정보행동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로는 김영옥, 김영지 그리고 김수현(201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편향을 정보 추구, 처리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문화변수로 보았는데 연구결과, 평등주의 성향은 기후변화 정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편향은 위험이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문화적 편향에 따라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감정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후변화는 영국을 비롯한 호주와 대부분의 유럽 대륙에서는 비교적 꾸준하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지되어 온 것에 반해 미국과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일관적이지 않은 인식을 보였다(Van der Linden, 2015).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 비해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를 더 위험한 이슈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Wolinsky-Nahmias, 2014).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판단은 국가 간에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 국가 안의 개인차도 무척 다양하게 나타난다(Smith & Leiserowitz, 2012; Whitmarsh, 2011).

위험을 표출하는 대상으로서 기후변화는 상대적으로 독특한 이슈이다(Breakwell, 2010). 기후변화는 중대성과 복잡성 차원에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기간에 대한 선택이 없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천천히,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현지 환경에서 살면서 위험을 감지한 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다(Gifford, 2011; Helgeson, Van der Linden, & Chabay, 2012). 그러므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진화론적으로 매우 획기적인 ‘신종’ 위험이며 이에 대한 위험인식을 측정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Griskevicius, Cantu, &

Van Vugt, 2012).

현대사회의 위험은 3가지 방향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진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첫 번째는 '느낌으로서의 위험(risk as feelings)'이다. '느낌으로서 위험'은 위험에 대한 즉각적이고 본능적이며 직관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분석으로서 위험(risk as analysis)'이다. '분석으로서 위험'은 위험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논리, 이성, 그리고 과학적 숙고와 관련이 있다. 선조들의 본능과 현대 과학의 분석적 차원이 충돌할 때 제기되는 관점이 '정치로서의 위험(risk as politics)'이다(Slovic et al., 2004).

슬로빅과 동료들(Slovic et al., 2004)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면하는 방식을 3가지 차원에서 설명했는데 이 중에서 위험인식과 감정의 관련성은 '느낌으로서 위험(risk as feeling)' 즉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공중의 위험인식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위험 판단이 복잡하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을 때 감정에 의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임을 주장한다(Finucane, Alhakami, Slovic, & Johnson, 2000; 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Slovic et al., 2004). 이처럼 정서적 처리(affective processing)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감정은 인지의 동인(drive)임을 전제한다(Van Der Linden, 2015). 예를 들어 제이언스(Zajonc, 1980)는 정서적 판단은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판단과는 독립적인 것이며 이들보다 선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슬로빅과 동료들(Slovic et al., 2007)은 감정 휴리스틱은 위험인식을 안내한다고 전제했다. 위험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이 정서적 단서에 의존한다는 접근은 다양한 실험 연구와 임상 연구에 기반을 둔다(예: Damasio, 1994; Dohle, Keller, & Siegrist, 2010; Finucane et al., 2000; Johnson & Tversky, 1983; LeDoux, 1996; Schwartz & Clore, 1983; Zajonc, 1984). 이 관점에 내재하는 생각은 신속한 정서적 판단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위험한 세계를 탐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처리 방법이라는 것이다(Slovic et al., 2004). 이러한 연구들, 즉 기후변화 위험인식의 예측 변인으로서 감정에 대한 연구(예: Leiserowitz, 2006; Smith & Leiserowitz, 2012; Sundblad, Biel, & Gärling, 2007)는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정서가 위험인식의 동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Van der Linden, 2015).

반면 비교적 최근 실험연구들은 감정 구성 개념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위험인식에 있어 감정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평가이론을 제안했다(Keller et al., 2012; Townsend, Spence, & Knowles, 2013). 이 관점은 제이언스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환경과 세부적인 정서적 반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인지적 과정을 주장했다(Lazarus, 1981, 1984). 라

자리스의 주장에 의하면 특정 감정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판단 후에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평가이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실증 연구들(예: Scherer, Schorr, & Johnstone, 2001; Siemer, Mauss, & Gross, 2007)이 모이면서 인지평가가 정서적 반응을 유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Loewenstine, Weber, Hsee, & Welch, 2001). 코벨트비드, 브룬, 존센과 이드(Kobbeltved, Brun, Johnsen, & Eid, 2005)는 교차 지연 패널연구를 수행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그들의 연구를 통해 위험 판단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만 부정적 감정이 위험 판단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감정-휴리스틱 가설, 즉 감정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 대비되는 것으로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이 부정적 감정을 낮게 한다는 인과관계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분노와 공포는 둘 다 부정적 감정이지만 분노의 유발 원인과 공포 유발 원인이 각각 다르고,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과 공포가 표출되는 방식 또한 매우 다르다(Lerner, Gonzalez, Small, & Fischhoff, 2003; Lerner & Keltner, 2000). 평가이론의 차원에서 보면 공포의 인지적 내용과 분노의 인지적 내용은 매우 다른데 러너와 동료들은 공포는 불확실성과 상황 통제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반면 분노는 확실성과 개인 통제에 대한 평가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설명했다(Lazarus, 1991; Lerner & Keltner, 2000). 이를 기후변화와 관련지어 보면, 기후변화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후변화 관련 책임소재에 대한 분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예일 프로그램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미국인의 6가지 유형(Global Warming's Six Americas)'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의 중요성, 지구온난화에 대한 근심과 위험인식을 측정하여 유형화한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중요성과 근심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위험인식이 가장 큰 유형이 불안형(alarmed)이며 다음으로 근심형(concerned), 신중형(cautious), 분리형(disengaged), 의심형(doubtful), 무시형(dismissive)으로 구분된다(Maibach, Leiserowitz, Roser-Renouf, & Merz, 2011). 불안형에 속하는 집단이 인간이 야기한 지구 온난화는 현재진행형이며 매우 위협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후변화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정치적 행동주의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 또는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6가지 유형과 기후변화 프레임, 정서적 반응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기후변화를 공공의 건강 문제로 프레임할 경우 불안형은 희망을 보이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지지를 나타냈다. 반면 기후변화를 국가안전의 문제로 프레임한 경우에 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분노를 보인 집단은 불안

형인 것으로 나타났다(Myers et al., 2012). 예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위험인식은 특정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후속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은 인지평가의 결과물이라는 평가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인지적 평가 과정이 감정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평가 요인은 대부분 동기와 관련된 부분(동기일치성, 동기관련성), 책임과 관련된 부분(책임소재, 대상), 가능성과 대처를 포함하는데 스미스와 커비(Smith & Kirby, 2001)는 평가 차원들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결합하여 해석의 틀을 이루어낸다고 했다. 즉, 특정 이슈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하는 것이 인지평가의 과정이며 그 결과물로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나은경·송현주·김현석·이준웅, 2008; Lazarus, 1991).

따라서 인지평가이론의 관점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이슈에 대하여 어떤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후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위험인식)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과 근심, 공포와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감정 간의 관련성을 상정한 <가설 1>을 설정했다.

가설 1.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부정적 감정(근심, 공포, 분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지지에 대한 감정과 효능감의 관련성

순응(compliance)은 특정의 행위규범이나 규칙에 일치하는 특정 행위자의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의 행위규범 혹은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위에 따르지 않는 불응(noncompliance)의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책순응이란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것으로(이혁우, 2017), 앤더슨(Anderson, 2009)은 정책적으로 규정된 규칙과 목표에 따라 대상 집단이 행동하는 것으로 정책순응을 정의했다. 정책순응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책수용이 있는데 정책순응은 외면적 행동이 일정한 행동규정에 일치하는 것인데 비해, 수용은 외면적인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면적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Duncan, 1981; 정정길·최중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2003, 재인용).

앤더슨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정책순응은 정책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순응을 의미하며 정책에 대한 지지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정책순응은 정책지지보다는 소극적 행위로 이해된다. 정책순응은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것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 완전히 순응하거나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응하거나 불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혁우, 2017;

하상근, 2011). 따라서 순응과 불응은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보다는 자발성과 적극성을 덜 필요로 한다.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분적 순응과 불응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에 대한 순응과 지지를 보면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 순응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소극적 정책수용행위로서 정책순응을 개념화하고 적극적 정책수용행위로서 정책지지를 개념화하여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효능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수준,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이나 정책지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지만,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감정이 정책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기후변화 이슈 자체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감정적 상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높은 몰입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데 기인한다(Lorenzoni, Nicholson-Cole, & Whitmarsh, 2007).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감정 변수가 개입된 실증 연구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심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몇몇 연구가 있고, 공포소구의 효과성이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도 유효할 것인가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 기포드(Gifford, 2011)는 그의 연구에서 기후변화 경감과 적응 노력을 제한하는 심리적 장애, 즉 사람들은 왜 기후변화 경감과 적응 노력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로 제한된 인지력(limited cognition), 이데올로기(ideology), 타인과의 비교(comparisons with others), 매몰 비용(sunk costs), 비신빙성(discredence),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s), 그리고 제한된 행위(limited behavior)를 제시했는데(Gifford, 2011, p.292) 이러한 원인들은 모두 사람들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 경감과 적응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한다고 할 때 행위를 동기화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이러한 심리적 장애 요인들이며 감정은 이러한 장애 요인들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포는 인지된 위험의 한 부분이며 분노는 심리적 반감, 평등인식과 정의의 한 부분이다(Gifford, 2011).

한편으로는 감정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지체계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는 논의도 있다(Grob, 1995; Weber,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약할 때만 감정이 중요한 요인이 됨을 제시했다(Smith, Haugtvedt, & Petty, 1994). 따라서 감정이라는 변인은 다른 장애 요인들보다

동기적 측면에서 약한 영향 요인일 수는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강하지 않다면 매우 중요한 동기 요소가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많을수록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행동과 단체행동을 지지하며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수용하며, 여성인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높은 수준의 지지행위를 보였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즉 기후변화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심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수준의 근심은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Stevenson, King, Selm, Peterson & Monroe, 201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감정은 홀로 또는 다른 영향요인과의 결합을 통해 행위의도를 이끌어 내는 동기요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감정은 이슈에 대한 신속한 참여를 도모하고 이슈 관련 상황이 발생할 때 특정 행동을 취하게 하며(Baumeister, Vohs, Nathan DeWall, & Zhang, 2007), 개인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를 해석하는 프레임의 역할을 한다(Nabi, 2003). 특히 공포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위험 상황에서 삼엄한 경계를 취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동기화하며(Baron, Logan, Lilly, Inman, & Brennan, 1994) 그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추구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정책 지지가 높아질 수 있으며(Leiserowitz, 2006), 무관심을 중대함으로 변환시켜 행동을 취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닌다(Thomas, McGarty, & Mavor, 2009).

기후변화연구와 관련해서는 근심(worry)이라는 감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근심은 개인의 효능감과 지식수준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Stevenson et al., 2017). 메이진더스와 동료들의 실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공포는 에너지 관련 행동에 대한 정보 추구하고 관련이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공포가 커질수록 에너지 관련 행동에 대한 체계적 정보처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했다(Meijnders, Midden, & Wilke, 2001). 켈스테드, 자흐란과 베디츠(Kellstedt, Zahran & Vedlitz, 2008)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개인의 효능감과 정보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에서 정보탐색능력(informedness), 과학자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개인의 효능감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관련 위험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덜 느끼며 근심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ellstedt, Zahran & Vedlitz, 2008). 또한, 과학자들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덜 느끼며 근심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 일 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과 근심 수준 그리고 개인의 효능감은 기후변화 감소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심은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지식의 영향을 매개하였는데,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근심은 커졌고,

이러한 걱정과 근심은 개인의 효능감과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ilfont, 2012).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적 감정과 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도출했다.

가설 2. 부정적 감정(근심, 공포, 분노)은 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소위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Gifford, 2011; Olson, 1965). 집단행동문제는 사람들이 특정 결과를 위해 어떤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믿는 것이며 이는 효능감의 결핍을 나타낸다.

효능감은 반두라가 제시한 사회인지이론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특정 결과를 낳기 위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Bandura, 1977)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반응효능감(response efficacy), 그리고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반응효능감은 결과에 대한 기대(outcome expectancy)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면 반응효능감은 특정 행위를 수행할 경우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행동을 취하려는 의도도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에 비해 반응효능감 또는 결과기대는 내적 통제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옹호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결과기대를 위해 고안된 메시지 디자인을 통해 반응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Bandura, 1982; Rogers, 1985). 집단효능감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반두라는 집단효능감을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집단적 행동에 내재된 속성이라고 설명했다(Bandura, 1995). 요컨대, 자기효능감이 특정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면 반응효능감은 그 특정 결과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기대이며 집단효능감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그들의 문제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효능감은 친환경적 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Heath & Gifford, 2002; Kaiser & Gutscher, 2003), 문화적 편향 또는 문화적 세계관에 따라 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이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운명주의는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을 통해서도 변화시

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인지된 행동통제와 자기효능감이 매우 낮다 (Lorenzoni et al., 2007; O'Connor, Bord, & Fisher, 1998). 특히 보수적인 관점과 위계적, 개인주의적 세계관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 좀 더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적 세계관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에 수용적인 경향이 있다(Dunlap, Xiao, & McCright, 2001; Kahan, Jenkins-Smith, & Braman, 2011; McCright & Dunlap, 2011; Unsworth & Fielding, 2014). 따라서 이들이 지지하는 정책에 대한 효능감 또한 문화적 편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 점에서 기후변화 정책수용과 지지에 대한 효능감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기후변화 정책수용과 지지를 예측하는 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가설 3>을 설정했다.

가설 3. 효능감은 기후변화 정책수용과 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예일 프로그램을 통한 위험인식의 유형에 따라 정책지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기후변화 위험이 어떻게 프레임 되는가에 따라서도 정책지지가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했다. 인간이 야기한 지구온난화는 현재진행형이며 매우 위협적이라고 믿는 위험인식이 가장 큰 불안형은 기후변화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정치적 행동주의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Maibach et al., 2011). 또한, 위험인식 유형과 메시지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기후변화를 공공의 건강 문제로 프레임할 경우, 즉 건강위험에 대한 강조를 할 때 불안형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지지를 나타냈다(Myers et al., 2012).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수용과 지지에 대한 위험인식의 영향에 대한 <가설 4>를 도출하고, 기후변화 정책수용과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로 <연구문제 1>을 설정했다.

가설 4.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기후변화 정책수용과 지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1. 문화적 편향은 기후변화 위험인식, 감정(근심, 공포, 분노)과 효능감을 매개하여 기후변화 정책수용과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편향과 기후변화 정책수용과 지지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위험인식과 감정, 효능감의 역할을 알아보기로 가설과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종합하여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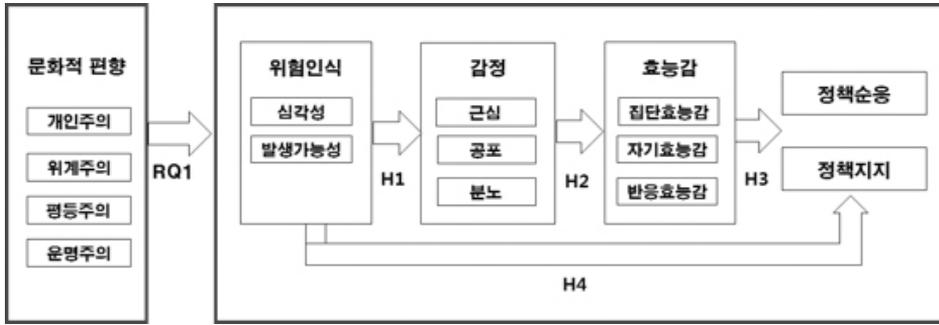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1) 연구방법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온라인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설문은 조사기관이 자체 패널로 확보하고 있는 20세부터 60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집은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할당표집하였다. 총 630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는 남성 315명(50%), 여성 315명(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비는 20대 114명(18.1%), 30대 122명(19.4%), 40대 140명(22.2%), 50대 146명(23.2%), 60대 이상 108명(17.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빈도(%)	학력	빈도(%)
남성	315 (50)	고졸이하	14 (2.2)
여성	315 (50)	고졸	123 (19.5)
		대졸	430 (68.3)
		대학원졸	63 (10.0)
연령	빈도(%)	소득수준	빈도(%)
20대(만19세-29세)	114 (18.1)	200만원미만	83 (13.2)
30대(만30세-39세)	122 (19.4)	200 이상- 400 미만	215 (34.2)
40대(만40세-49세)	140 (22.2)	400 이상- 600 미만	184 (29.2)
50대(만50세-59세)	146 (23.2)	600 이상- 800 미만	90 (14.2)
60대 이상(만60세~)	108 (17.1)	800 이상	58 (9.2)

거주지		거주지	
서울	116 (18.4)	울산	17 (2.7)
경기	136 (21.6)	강원도	24 (3.8)
부산	40 (6.3)	충청도(세종 포함)	50 (7.9)
대구	32 (5.1)	경상도	70 (11.1)
인천	36 (5.7)	전라도	49 (7.8)
광주	22 (3.5)	제주도	15 (2.4)
대전	23 (3.7)	빈도(%)	630 (100)

2) 주요 변인의 신뢰도 검증

설문은 크게 6개 부분으로 문화적 편향과 위험인식, 부정적 감정과 효능감, 정책순응과 정책지지로 구성했다.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정책지지에 대하여 질문하기 전에,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관련 정책에 대하여 서술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구분됩니다.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으로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 방역, 물웅덩이 제거, 허수도 정비와 같은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감축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대응방안으로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분리수거, 재활용, 나무심고 가꾸기와 같은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는 설명문과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관련 정책임을 제시했다.

(1) 문화적 편향

문화적 편향 측정 문항은 모두 30문항으로 리플의 연구와 라이제로비츠의 연구를 참조하여 4개 문화적 편향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측정했다(Leiserowitz, 2006; Rippl, 2002).

평등주의는 “나는 가난을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를 포함한 7문항, 위계주의는 “나는 요즘 젊은이들에겐 더욱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8문항, 운명주의는 “내가 누구를 정치 후보로 투표하든지 이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외 8문항, 개인주의는 “공정한 체제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를 포함한 6개 문항으로 측정했다(〈표 2〉 참조).

(2) 기후변화 위험인식

위험인식은 위험 발생 확률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9문항을 기후변화의 심

각성과 발생가능성을 50년 이내로 제시하여 질문했다. 심각성의 경우,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의 위협이 인류를 제외한 동식물에게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3문항으로 “전혀 심각하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심각하다”의 7점으로 측정했다. 발생 가능성은 “향후 50년 이내에 기후변화(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낮아질 것이다”를 포함한 6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으로 측정하였다(Leiserowitz, 2003, 2006).

(3)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은 모두 3개 문항으로 근심 1문항, 두려움 1문항, 분노 1문항의 단일 문항으로 질문했다. 근심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두려움은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분노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전혀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의 1점에서 “매우 많이 느낀다”의 7점 척도로 측정했다.

(4) 효능감

효능감은 반두라와 위티의 측정 항목을 참조하여 집단효능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반응효능감을 구분하여 총 10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했다(Bandura, 1977; Witte, 1993). 집단효능감은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4문항으로 측정했고, 자기효능감은 “나는 나 스스로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를 포함한 3문항, 반응효능감은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면 기후변화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포함한 3문항으로 측정했다.

(5)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정책지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설명과 정책지지 측정 문항은 라이제로비츠의 연구를 참조했고(Leiserowitz, 2006), 정책순응 측정 문항은 이혁우(2017)와 하상근(2011)의 연구를 참조했다. 설문 진행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순응과 지지를 측정했다.

정책순응은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서 요구하는 바에 기꺼이 응하고자 한다”를 포함한 3개 문항으로 측정했고, 정책지지는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3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으로

측정했다.

주요 변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 확인을 하였다. 각각의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2>에 나타나있고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했다.

표 2. 측정항목과 신뢰도

		측정항목	문항수	α
문화적 편향	평등 주의	나는 가난을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지금 현 세계가 필요한 것은 부의 균등한 분배이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회사와 기관들도 조직화되어야한다. 나는 소수배려정책을 지지한다. 민약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상황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부의 균등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더 평등한 자원의 분배를 위한 공평함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7문항	.850
	위계 주의	나는 요즘 젊은이들에겐 더욱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하다. 우리는 현재 병력보다 더 강한 병력을 보유해야 한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위해가 되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 사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들이 권력에 너무 자주 도전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풍습과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편이다.	8문항	.770
	공명 주의	내가 누구를 정치 후보로 투표하든지 이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삶이 복권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을 만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낫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공익에 대해 걱정해봤자 쓸모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다. 열심히 일해도 후일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은 효과적이지 않다. 나는 금전적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9문항	.852
	개인 주의	공정한 체계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사회는 기업에게 발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약 어떤 사람이 부를 얻고자 패기 있게 움직인다면, 그는 그 과정을 충분히 누릴만한 권리가 있다. 삶은 열심히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의 주된 이유다.	6문항	.722
	심각성	기후변화(지구 온난화)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기후변화(지구 온난화)의 위험이 인류를 제외한 동식물에게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지구 온난화)로 인해 나타난 현재의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위험 인식	발생 가능성 향후 50년 이내에 기후변화(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향후 50년 이내에 기후변화(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향후 50년 이내에 기후변화(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심각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향후 50년 이내에 기후변화(지구 온난화)로 인해 나의 생활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향후 50년 이내에 기후변화(지구 온난화)로 인해 내가 사는 곳에 물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향후 50년 이내에 기후변화(지구 온난화)로 인해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9문항	.901

부정적 감정	기후변화(지구 온난화)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기후변화(지구 온난화)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기후변화(지구 온난화)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3문항	.887	
효능감	집단 효능감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예방 행동 수칙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협력하여 예방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결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후변화는 내가 속한 집단의 노력이 동원됨으로써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문항	.892
	자기 효능감	나는 나 스스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예방 행동 수칙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기후 변화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3문항	.884
	반응 효능감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면 기후변화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면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발생 확률이 적을 것이다.	3문항	.875
정책 순응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서 요구하는 바에 가까이 응하고자 한다.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가까이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에서 요구하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가까이 준수할 것이다.	3문항	.892	
정책 지지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도입을 찬성한다.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의 실현 해택이 나와 내 주변에 먼저 주어지길 바란다.	3문항	.872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을 통해 가설과 연구문제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문화적 편향이 정책 순응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다른 기타 요인의 정책 순응과 지지에 대한 영향력을 순차적으로 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단계별로 변수를 투입했다.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정치성향을 투입했으며, 2단계에서는 문화적 편향 변인(개인주의, 위계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을 투입했다. 3단계에서는 위험인식(심각성, 발생가능성), 4단계는 부정적 감정(걱정, 두려움, 분노), 5단계는 효능감(집단효능감, 자기효능감, 반응효능감)을 투입했고 마지막으로 정책순응을 투입했다.

다음 단계로 변인간의 세부적인 인과관계를 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했다.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고, 경로분석 실시 후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직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4. 분석결과

1) 기후변화 정책지지 영향요인의 설명력 검증

먼저, 연구가설 검증과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사용된 측정 항목의 기술통계 값을 살펴보았다. 개인주의 평균은 5.23(SD = .76), 위계주의 평균은 4.89(SD = .75), 평등주의 평균은 4.65(SD = .94), 운명주의 평균은 3.66(SD = .97)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식의 경우, 심각성의 평균은 5.43(SD = .91), 발생가능성은 5.05(SD = .94)로 나타났다. 감정 변수 중에서 근심의 평균은 5.23(SD = 1.14), 공포의 평균은 5.14(SD = 1.20), 분노의 평균은 4.85(SD = 1.30)로 나타났다. 인지 변수인 효능감 중에서 집단효능감의 평균은 4.52(SD = 1.00),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4.74(SD = .98), 반응효능감의 평균은 4.93(SD = 1.04)으로 나타났다. 정책순응의 평균은 4.82(SD = .93)이고 정책지지의 평균은 5.03(SD = .98)이다. 변수의 상관관계 값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했다(이일현, 2014). 검토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2.014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고, 모든 변수의 VIF값이 1.003에서 3.503으로 모두 10.0미만으로 나타나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기후변화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상정한 변인들 중에 21.3%의 설명력을 보인 정책순응이 가장 영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모델 5>의 R² Change). 본 연구에서 주목한 문화적 편향은 17.6%(<모델 2>의 R² Change)의 설명력을 보였고,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6.8%(<모델 3>의 R² Change)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외에 효능감과 부정적 감정은 각각 5.8%와 1.6%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4> 참조).

통제변인들 중에서 기후변화 정책지지에 대한 영향력은 정치성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22, p < .001$). 문화편향 중에서는 기후변화 정책지지에 대한 평등주의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beta = .360, p < .001$), 다음으로 위계주의($\beta = .177, p < .001$), 개인주의($\beta = .079,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운명주의는 기후변화 정책지지에 대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 = -.184, p < .001$).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발생가능성에 비해 심각성이 더 큰 영향을 나타냈고($\beta = .251, p < .001$), 부정적 감정 중에서는 두려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beta = .182, p < .001$).

집단효능감, 자기효능감과 반응효능감 중에서 기후변화 정책지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22, p < .001$), 다음으로 반응효능감이 영향력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beta = .091, p < .01$), 집단효능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순응이라는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집단효능감은 정책지지에 대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 = -.083, p < .01$).

종합하면, 기후변화 정책지지와 관련하여 4개의 문화적 편향은 모두 다른 과정을 전개하는데, 특히 운명주의자는 나머지 3개 유형과는 달리 부적 방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간의 세부적인 인과관계를 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했다.

2) 기후변화 정책지지 영향요인의 인과관계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GFI = .934, NFI = .943, CFI = .958$ 로 대표적인 절대부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에 있어 모두 받아들여질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인과관계검증을 위해 4개 문화적 편향을 관측변수로 하고, 위험인식, 부정적 감정, 효능감과 정책순응, 정책지지를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문화편향의 구체적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직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했다.

〈가설 1〉은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공포와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검증결과,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커질수록 공포와 분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884, p < .001$). 〈가설 2〉는 부정적 감정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검증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커질수록 효능감도 증가했다($\beta = .488, p < .001$).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은 정책순응과 지지에 대한 효능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검증결과, 효능감이 커질수록 정책순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beta = .462, p < .001$), 정책지지에 대한 효능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22, p > .05$).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지지되었다.

〈가설 4〉는 정책순응과 지지에 대한 위험인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검증결과, 정책순응에 대한 위험인식의 영향은 $p = .08$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정책지지에 대한 위험인식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참조).

위험인식과 감정, 효능감이 정책순응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적 편향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 1〉을 설정했다. 먼저, 위험인식을 보면 4가지 문화적 편향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평등주의 $\beta = .316, p < .001$, 위계주의 $\beta = .273, p < .001$, 개인주의 $\beta = .095, p < .05$, 운명주의 $\beta = -.099, p < .01$).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평등주의가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위계주의, 개인주의 순이며 운명주

의는 기후변화 위협인식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 = -.099, p < .01$).

다음으로 정책순응과 지지에 대한 문화적 편향의 차이는 먼저 정책순응에 대해서는 평등주의($\beta = .165, p < .001$)와 개인주의($\beta = .103, p < .01$)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운명주의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3, p < .001$). 정책순응에 대한 위계주의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지지에 대해서는 개인주의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6, p < .001$)(<표 6>, <그림 2>참조).

문화적 편향이 정책순응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위협인식, 감정, 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전체 인과효과 분석을 하고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했다. 전체 인과효과를 보면, 4개의 문화적 편향은 모두 정책순응과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주의($\beta = .331, p < .001$), 개인주의($\beta = .162, p < .001$), 위계주의($\beta = .110, p < .001$) 순으로 기후변화 정책순응에 대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운명주의는 기후변화 정책순응에 대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 = -.245, p < .001$).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지지는 평등주의($\beta = .386, p < .001$), 위계주의($\beta = .147, p < .001$), 개인주의($\beta = .105, p < .001$) 순으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운명주의는 기후변화 정책지지에 대해서도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 = -.230, p < .001$). 즉 평등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위계주의가 클수록 정책순응과 지지는 증가하고 특히 평등주의의 영향력이 가장 큰 반면 운명주의는 정책순응과 지지를 감소시킨다(<표 7> 참조).

문화적 편향 유형별로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기후변화 정책지지에 대한 개인주의의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효과를 통해 전체 인과효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가 직접적으로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정적 감정이 효능감을 증대시켜 정책순응과 정책지지를 증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위계주의는 위협인식과 효능감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모든 간접효과가 유의했기 때문에 전체인과효과에서는 모든 변인들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계주의는 위협인식과 효능감을 증대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정책순응의 간접효과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책순응과 정책지지를 증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평등주의는 기후변화 영향요인의 인과관계에 있어 직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감정의 경우, 직접효과에서는 부적 방향을 보였지만 간접효과를 통해 전체인과효과에서는 정적 방향을 보였다. 즉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지만 간접효과를 통해 전체인과효과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커지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평등주의의 부정적 감정은 효능감을 높이고 증대된 효능감이 정책순응과 정책지지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운명주의는 나머지 3개 유형과는 달리 위험인식과 효능감 그리고 정책순응에 대한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운명주의가 높을수록 위험인식과 효능감은 낮아지고 기후 변화 정책순응도 감소함을 의미한다. 운명주의는 정책지지는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전체인과효과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운명주의가 강할수록 위험인식과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고 효능감은 약화되며 궁극적으로 정책순응과 지지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개인주의	5.23	.75	1													
2) 위계주의	4.89	.75	.503**	1												
3) 평등주의	4.65	.94	.129**	.193**	1											
4) 운명주의	3.66	.97	.081*	.180**	.127**	1										
5) 심각성	5.43	.91	.238**	.301**	.297**	-.057	1									
6) 발생가능성	5.05	.94	.153**	.263**	.283**	.112**	.587**	1								
7) 근심	5.23	1.14	.137**	.289**	.233**	-.035	.652**	.505**	1							
8) 공포	5.14	1.20	.139**	.255**	.200**	.038	.599**	.556**	.775**	1						
9) 분노	4.85	1.30	.127**	.255**	.254**	.045	.541**	.487**	.671**	.738**	1					
10) 집단효능감	4.52	1.00	.176**	.222**	.269**	-.110**	.459**	.275**	.459**	.416**	.391**	1				
11) 자기효능감	4.74	.98	.165**	.239**	.243**	-.145**	.475**	.275**	.427**	.381**	.347**	.736**	1			
12) 반응효능감	4.93	1.04	.194**	.215**	.245**	-.043	.471**	.301**	.400**	.392**	.357**	.623**	.673**	1		
13) 정책순응	4.82	.93	.232**	.201**	.329**	-.158**	.410**	.230**	.336**	.297**	.276**	.477**	.495**	.430**	1	
14) 정책지지	5.03	.98	.206**	.255**	.388**	-.114**	.458**	.325**	.391**	.389**	.320**	.429**	.491**	.439**	.738**	1

주: N = 63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 1: 통제변인				모델 2: 문화적 편향				모델 3: 위험인식			
	B	β	SE	t	B	β	SE	t	B	β	SE	t
상수		3.150	.249	12.650		1.320	.357	3.693		.665	.353	1.887
성별	.270	.137***	.075	3.573	.312	.158***	.068	4.577	.192	.097**	.067	2.873
연령	.014	.189***	.003	4.885	.004	.058	.003	1.516	.005	.061	.003	1.667
정치 성향	.187	.222***	.033	5.733	.085	.100**	.032	2.675	.063	.075*	.030	2.080
개인주의					.104	.079*	.053	1.982	.073	.056	.050	1.454
위계주의					.231	.177***	.057	4.033	.128	.098**	.056	2.265
평등주의					.360	.344***	.040	9.091	.279	.267***	.039	7.125
운명주의					-.186	-.184***	.036	-5.114	-.155	-.153***	.035	-4.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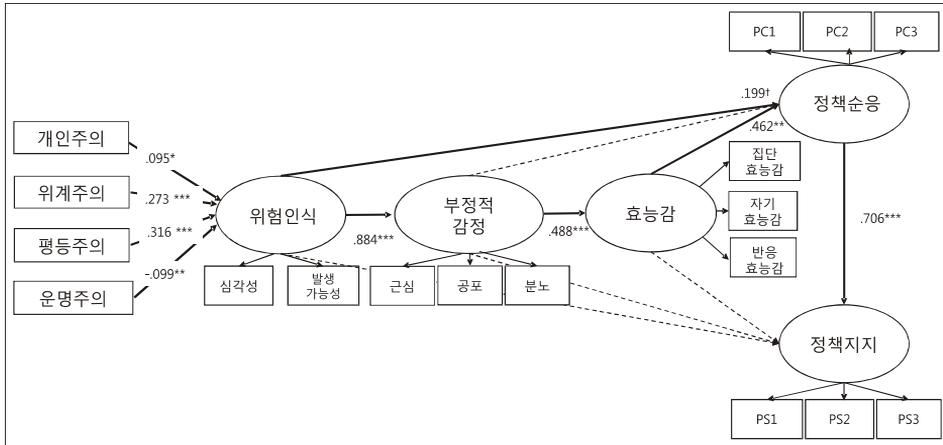
심각성									.272	.251***	.048	5.718
발생가능성									.074	.070*	.044	1.662
F	19.615***				37.575***				33.977***			
R ²	0.86				.262				.330			
ΔR ²	0.82				.254				.321			
R ² Change	0.86***				.176***				.068***			
변인	모델 4: 감정				모델 5: 효능감				모델 6: 정책순응			
	B	β	SE	t	B	β	SE	t	B	β	SE	t
상수	.678		.352	1.927	.206		.342	.601	-.187		.275	-.681
성별	.170	.086**	.067	2.554	.137	.070*	.064	2.140	.050	.025	.052	.959
연령	.003	.043	.003	1.165	.004	.051	.003	1.442	-.001	-.015	.002	-.521
정치 성향	.066	.078*	.030	2.180	.074	.088**	.029	2.557	.041	.049*	.023	1.778
개인주의	.081	.062	.050	1.620	.067	.051	.048	1.387	-.027	-.021	.039	-.707
위계주의	.123	.094*	.056	2.186	.086	.066	.054	1.589	.109	.083**	.043	2.511
평등주의	.285	.272***	.039	7.317	.239	.229***	.038	6.331	.129	.124***	.031	4.183
윤명주의	-.157	-.156***	.035	-4.489	-.114	-.113***	.034	-3.345	-.046	-.045*	.028	-1.656
심각성	.201	.186***	.053	3.770	.105	.097*	.053	1.987	.040	.037	.042	.945
발생가능성	.023	.022	.046	.503	.043	.041	.044	.970	.045	.043	.036	1.264
근심	.031	.036	.049	.625	.000	-.001	.047	-.010	-.011	-.013	.038	-.290
공포	.149	.182***	.050	2.993	.128	.157**	.048	2.692	.127	.155***	.038	3.310
분노	-.051	-.068	.038	-1.341	-.062	-.082*	.037	-1.677	-.049	-.065*	.029	-1.673
집단효능감					.006	.006	.048	.121	-.082	-.083**	.039	-2.090
자기효능감					.223	.222***	.052	4.320	.109	.109***	.042	2.610
반응효능감					.085	.091**	.043	2.007	.050	.054	.034	1.475
정책순응									.620	.585***	.033	18.505
F	27.297***				27.891***				62.090***			
R ²	.347				.405				.618			
ΔR ²	.334				.391				.608			
R ² Change	.016***				.058***				.213***			

주: N = 630,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절대 부합 지수					증분 부합 지수				간명적합지수
	χ ²	RMR	GFI	AGFI	RMSEA	NFI	IFI	TLI	CFI	AIC
	387.233 df = 104 p = .000	.041	.934	.891	.065	.943	.958	.938	.958	521.233

주: N = 630, * p < .05, ** p < .01, *** p < .001



.....▶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2. 경로분석결과¹⁾

표 6. 경로계수

			<i>Estimate(standardized)</i>	<i>S.E.</i>	<i>C.R.</i>	<i>P</i>	
개인주의	→	위험인식	0.97	(.095)	.048	2.002	*
	→	부정적 감정	-.127	(-.091)	.085	14.148	***
	→	효능감	.095	(.084)	.046	2.072	*
	→	정책순응	.114	(.103)	.045	2.499	**
	→	정책지지	-.023	(-.017)	.042	-5.39	n.s
위계주의	→	위험인식	.276	(.273)	.049	5.590	***
	→	부정적 감정	.056	(.041)	.055	1.025	n.s
	→	효능감	.089	(.080)	.048	1.845	*
	→	정책순응	-.013	(-.012)	.046	-.292	n.s
	→	정책지지	.030	(.023)	.042	.718	n.s
평등주의	→	위험인식	.256	(.316)	.034	7.465	***
	→	부정적 감정	-.075	(-.068)	.040	-1.876	*
	→	효능감	.153	(.172)	.033	4.625	***
	→	정책순응	.144	(.165)	.036	4.055	***
	→	정책지지	.111	(.106)	.033	3.396	***
운명주의	→	위험인식	-.078	(-.099)	.033	-2.362	**
	→	부정적 감정	.029	(.028)	.035	.852	n.s
	→	효능감	-.159	(-.184)	.031	-6.076	***
	→	정책순응	-.113	(-.133)	.031	-3.636	***
	→	정책지지	-.040	(-.040)	.029	-1.409	n.s

1) 모든 수치는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임. 각각 개인주의, 위계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와 잠재변인 간의 인과관계는 간명성을 위해 그림에 제시하지 않았음.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표 6> 참조

			<i>Estimate(standardized)</i>		<i>S.E.</i>	<i>C.R.</i>	<i>P</i>
위험인식	→	부정적 감정	1.205	(.884)	.085	14.148	***
	→	정책 순응	.215	(.199)	.123	1.741	.082
	→	정책지지	.107	(.083)	.113	.942	n.s
부정적 감정	→	효능감	.393	(.488)	.036	11.013	***
	→	정책순응	-.089	(-.112)	.084	-1.064	n.s
	→	정책지지	.061	(.064)	.077	.789	n.s
효능감	→	정책순응	.453	(.462)	.051	8.808	***
	→	정책지지	.026	(.022)	.051	.509	n.s
정책순응	→	정책지지	.843	(.706)	.054	15.624	***

주: N = 630,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경로의 인과효과분해

			<i>Direct Effect</i>	<i>Indirect Effect</i>	<i>Total Effect</i>
개인주의	→	위험인식	.095*		.095*
	→	부정적 감정	-.091***	.084*	-.007
	→	효능감	.084*	-.003	.081
	→	정책순응	.103**	.057*	.161**
	→	정책지지	-.017	.123**	.105**
위계주의	→	위험인식	.273***		.273**
	→	부정적 감정	.041	.241**	.282**
	→	효능감	.080*	.137**	.217**
	→	정책순응	-.012	.123**	.110**
	→	정책지지	.023	.123**	.147**
평등주의	→	위험인식	.316***		.316**
	→	부정적 감정	-.068*	.280**	.212**
	→	효능감	.172***	.103**	.276**
	→	정책순응	.165***	.166**	.331**
	→	정책지지	.106***	.280**	.386**
운명주의	→	위험인식	-.099**		-.099*
	→	부정적 감정	.028	-.088*	-.060
	→	효능감	-.184***	-.029	-.213**
	→	정책순응	-.133***	-.112**	-.245**
	→	정책지지	-.040	-.190**	-.230**
위험인식	→	부정적 감정	.884***		.884**
	→	정책 순응	.199	.100	.299**
	→	정책지지	.083	.277*	.360**
부정적 감정	→	효능감	.488***		.488**
	→	정책순응	-.112	.225**	.113
	→	정책지지	.064	.090	.154
효능감	→	정책순응	.462***		.462**
	→	정책지지	.022	.326**	.348**
정책순응	→	정책지지	.706***		.706**

주: N = 630,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문화적 신념 패턴의 원형이며 환경과 위험을 사회적 구성물로서 인식한다는 위험의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편향과 위험인식, 그리고 부정적 감정과 효능감이 정책순응과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문화적 편향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문화적 편향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가 감정과 효능감을 거치면서 정책순응과 지지에 대한 영향력이 변화하는지 검토했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편향, 즉 개인주의, 위계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주의가 가장 높지만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낸 것은 평등주의다. 평등주의와 개인주의, 위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도 증가하는 반면 운명주의 성향이 커질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낮아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위험인식이 나타나는 위험 상황 즉 위험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함의를 주는 것으로 문화적 편향은 특정 위험은 더 위험하다든지 또는 덜 위험하다와 같은 위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인 문화적 편향에 따라 이상적인 사회의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에서는 특정 이슈와 관련된 공중의 위험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 편향은 직접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지지에 다른 영향을 나타냈다. 정책순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낸 문화적 편향은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운명주의이다.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성향이 클수록 정책순응도 높아지는 반면 운명주의는 정책순응을 감소시킨다.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낸 문화적 편향은 평등주의가 유일하다. 즉 평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책지지도 증가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순응과 지지를 동일한 정책수용의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를 도출했다. 이는 앞서 전제한 소극적 정책수용행위로서 순응과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수용행위로서 정책지지를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순응은 정책지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대한 순응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클수록 효능감은 증대되고 정책순응은 높아지지만 이러한 과정이 정책지지도까지 이어지는 않았다. 정책지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효능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효능감은 정책순응을 높이는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감정이 인지에 우선하는지 또는 인지평가의 결과로 감정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

만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동기로서의 감정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심과 공포 그리고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이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정책순응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시사점을 준다. 부정적인 개별 감정 자체만으로는 정책지지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지만, 위험인식에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이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강력한 행동의도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감정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감정(moral emotion)”이 친환경적 행위를 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oeser, 2012). 이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후변화 정책에서 요구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요령과 같은 부분이 사실상 도덕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은 곧 도덕적 감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중의 인식에 수반되는 근심과 기후변화의 부정적 결과를 접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지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안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지지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공중은 평등주의자로 나타났다. 평등주의자의 위험인식과 부정적 감정 그리고 효능감은 정책순응과 정책지지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개인주의 편향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므로 감정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에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위계주의는 효능감을 높이므로 인지적 요소에 호소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반응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 비해 개인적 관련성이 낮으므로 메시지를 통해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지적 요소이다. 따라서 위계주의자들의 정책지지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반응효능감을 증대시키는 메시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정책지지에 대한 운명주의는 다른 3가지 문화평향과는 다른 역의 방향을 나타냈다. 즉 운명주의 성향이 클수록 기후변화 위험인식은 낮아질 뿐만 아니라 효능감과 정책순응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명주의자들은 마치 PR 영역에서 의미하는 비공중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유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인식을 고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한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의 문화이론을 기후변화이슈에 적용하여 실제 한국인의 문화적 편향과 관련된 위험인식을 검토한 점이다. 한국인의 문화적 편향이 어떻게 나타나며 위험인식의 생성과 전개가 문화적 편향과 관련이 있음을 검토했다. 특히 위험인식이 실제 행동의도의 동기적 원천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의 계층성과 응집력에 근

간한 문화적 편향의 관련성을 검토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인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니지만,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평등주의적 성향의 긍정적 영향력이 크다. 이처럼 위험이슈와 관련한 한국인의 문화적 편향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위험이슈 해결을 위해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감정과 효능감의 역할을 행동경향의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감정과 인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위험인식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은 효능감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공중이 정책에 순응하게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며 이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위험이슈와 관련한 공중세분화의 기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학문적 의의는 적극적 정책수용행위와 소극적 정책수용행위에 대한 구분 필요성을 제시한 점이다. 정책집행에 있어 정책에 대한 순응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정책대상자 집단이 관련 정책에 대한 순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정책공중이 어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행위일 수 있지만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행동요령을 제시한다면 그 정책에 대한 순응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위험이슈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대응 노력,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순응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정책지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적 함의는 정책공중 유형화와 정책공중 유형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있다. 물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문화적 편향 집단을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성할 수 있을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문화적 편향은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운명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동시에 위계주의 성향도 지닐 수 있다. 즉 복수의 문화적 편향이 강한 경우에는 어떻게 유형화가 가능한지, 이러한 공중유형화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운명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비공중인가 또는 비활동공중인가, 운명주의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많은 의문점은 남지만, 영향력 공중의 주요 특성으로 평등주의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효하다. 즉 운명주의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평등주의적 사고와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책순응과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감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주의 성향과 인지의 영향력만 활용할 수 있는 위계주의 성향의 경우, 각각 감정과 인지에 호소하는 차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문화적 편향이 다양한 정부 규제정책의 전략적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들

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위계주의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oversight)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주의자들에게는 경쟁(competition)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평등주의자들은 상호성(mutuality)을 강조해야 하며 운명주의자들에게는 비합상성(contrived randomness)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했다(Hood, 1995; Hood, James, Peters, & Scott, 2004; Hood, James, Scott, Jones, & Travers, 1999; Lodge & Wegrich, 2011; Meijer, Boon, & Moors, 2013). 이 점은 인지에 호소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계주의의 경우, 전체의 기능에 기여하는 일상적인 절차와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Rayner, 1984). 위계주의 성향은 감정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지만, 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절차와 행위가 전체의 기능에 기여한다는 위계적 관료주의의 신념과 맥을 같이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현실적인 실천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효능감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적 편향과 특정 메시지 프레임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샬라한(Shanahan, 2007)은 기후변화를 매우 갑작스러운 이슈로 프레임할 때 평등주의자와 운명주의자의 몰입이 높아지며 특정 프레임에 반응한다고 했다. 기후변화를 매우 갑작스러운 것으로 틀 짓기 할 때 평등주의자들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재난, 정의, 평등 프레임에 집중했다. 역으로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운명주의자의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 프레임에 집중했는데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수록 운명주의자의 가치와 신념을 쉽게 배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amy & Hulme, 2011).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불확실성 메시지는 운명주의적 성향을 양산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며, 기후변화는 온 인류가 맞닥뜨리는 재난임을 강조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사고로 이끌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근심과 공포, 분노라는 부정적 감정은 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혹자는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부정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유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효능감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순응을 위해 부정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유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을 다스릴 방법을 커뮤니케이션 전략 안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위협인식과 관련하여 분노는 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고 분노가 특정 대상을 향한 감정, 목적 지향적인 행위가 방해 받을 때에 나타나는 감정(Lazarus, 1991)이며 이슈에 따라서는 급진적인 행동 유발의 동기가 되는 감정(Turner, 2007)이라는 점을 안다면 분노와 관련된 주체가 공중을 이해하고 다가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효능감을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 그리고 반응효능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 기후변화 정책순응과 지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따라서 기후변화 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시 무엇보다 자기효능감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편향을 집단 특성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인의 성향으로 다루었다. 보다 더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상호배타적인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집단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가적으로,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성별과 연령에 부가하여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기후변화 관련 정책지지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Dietz, Dan, & Shwom, 2007)와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Shi, Visschers, & Siegrist, 2015). 추후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분석과 함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정치성향이 주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화적 편향과 정치 성향의 관련성을 세밀히 검토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적 편향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 인지 그리고 행동의도의 관련성을 다양한 위험 이슈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는 위험의 문화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주의, 위계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라는 4개의 유형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또는 새로운 문화적 편향이 나타나는지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의 문화이론의 보완과 확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서용·김선희 (2016). 기후변화 의식과 대응행동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54권 1호, 179-206.
- 김영옥·김영지·김수현 (2018).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연구. <한국언론학보>, 62권 5호, 72-106.
- 김영옥·박단아·민혜민 (2018). 기후 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완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118호, 127-170.
- 김현철·조성겸·김학수 (2009). <기후변화관련 사회적 논의의 변화>.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8.
- 나은경·송현주·김현석·이준웅 (2008). 정서의 프레이밍: 경제 뉴스 보도 기사의 정서 반응 유발 효과.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378-406.
- 노성중·이완수 (2013). '지구온난화' 對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1호, 163-198.
- 박혜영·김영옥 (2017). 지구온난화 이슈에서 낙인에 미치는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61권 6호, 273-317.
- 박희재·김명심 (2016).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시민의 지지도와 정치의식: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24권 3호, 107-137.
- 유명순·윤혜정·천진희·주영기 (2017). 국내 뉴스미디어의 기후변화 보도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7권 3호, 105-137.
- 윤순진 (2016).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권 1호, 7-61.
- 이나경·임혜숙·이영애 (2008). 세계관과 위험지각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권 3호, 635-651.
- 이일현 (2014). EasyFlow 회귀분석, 한나래출판사.
- 이혁우 (2017).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권 4호, 241-267.
- 임인재·박성철·이덕환 (2013). 논쟁적 과학이슈에 대한 신문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469-501.
- 정경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200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주영기 (2013). 한국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기후변화 뉴스 프레이밍 차이 연구.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591-626.
- 하상근 (2014). 사회적 자본이 정책불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권 1호, 131-157.

한국 경제 연구원 (2015). KERI 경제 동향 URL: http://www.keri.org/web/www/keridb_0101
환경부 (2010). 기후변화, 이제는 적응입니다. URL:<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6451&fileSeq=1&openYn=Y>

Anderson, A. (2009). Media, politics and climate change: Towards a new research agenda. *Sociology Compass*, 3(2), 166-182.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Bandura, A. (Ed.).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on, R., Logan, H., Lilly, J., Inman, M., & Brennan, M. (1994). Negative emotion and message process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2), 181-201.

Baumeister, R. F., Vohs, K. D., Nathan DeWall, C., & Zhang, L. (2007). How emotion shapes behavior: Feedback, anticipation, and reflection, rather than direct caus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2), 167-203.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Beck, U. (1999). *World risk society*. Cambridge, UK: Polity.

Bellamy, R., & Hulme, M. (2011). Beyond the tipping point: understanding perceptions of abrupt climate change and their implications. *Weather, Climate, and Society*, 3(1), 48-60.

Breakwell, G. M. (2010). Models of risk construction: some applications to climate chang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6), 857-870.

Calman, K. C. (2001). The language of risk: a question of trust. *Transfusion*, 41(11), 1326-1328.

Carmichael, J. T., Brulle, R. J., & Huxster, J. K. (2017). The great divide: understanding the role of media and other drivers of the partisan divide in public concern over climate change in the USA, 2001 - 2014. *Climatic change*, 141(4), 599-612.

Dake, K. (1991).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 of risk: An analysis of contemporary worldviews and cultural bias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2(1), 61-82.

- Dake, K. (1992). Myths of nature: Cul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21-37.
- Dake K., Wildavsky A.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and Risk-Taking Preferences. In: Garrick B.J., Gekler W.C. (eds) *The Analysis, Communication, and Perception of Risk. Advances in Risk Analysis, vol 9*. Springer, Boston, MA.
- Damasio, A. R.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ew York: Grosset/Putnam.
- Dietz, T., Dan, A., & Shwom, R. (2007). Support for climate change policy: Social psychological and social structural influences. *Rural sociology*, 72(2), 185-214.
- Dohle, S., Keller, C., & Siegrist, M. (2010).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and implicit associations: Implications for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30(7), 1116-1128.
- Douglas, M., & Wildavsky, A. (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uncan, S. S. (1981). Housing policy, the methodology of levels, and urban research: the case of Castell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5(2), 231-254.
- Dunlap, R. E., Xiao, C., & McCright, A. M. (2001). Politics and environment in America: Partisan and ideological cleavages in public support for environmentalism. *Environmental Politics*, 10(4), 23-48.
- Dunwoody, S. (1999). Communicating uncertainty: Media coverage of new and controversial science in Friedman, Dunwoody, & Rogers (Eds), *Scientists, journalists, and the meaning of uncertainty*(pp. 59-79), Routledge.
- Ellis, R. J., & Thompson, F. (1997). Culture and the environment in the Pacific Northwe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4), 885-897.
- Finucane, M. L., Alhakami, A., Slovic, P., & Johnson, S. M.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3(1), 1-17.
- Giddens, A. (1999). Risk and responsibility. *The Modern Law Review*, 62(1), 1-10.

- Gifford, R. (2011). The dragons of inaction: psychological barriers that limit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66(4), 290.
- Grendstad, G., & Selle, P. (2018). Cultural theory, postmaterialism, and environmental attitudes. In *Culture matters* (pp. 151-168). Routledge.
- Griskevicius, V., Cantú, S. M., & Van Vugt, M. (2012). The evolutionary bases for sustainable behavior: Implications for marketing, policy, and socia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31(1), 115-128.
- Grob, A. (1995). A structural model of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5(3), 209-220.
- Heath, Y., & Gifford, R. (2002).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redicting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10), 2154-2189.
- Helgeson, J., van der Linden, S., & Chabay, I. (2012). The role of knowledge, learning and mental models in public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related risks. *Learning for Sustainability in Times of Accelerating Change*, 329-346.
- Hood, C. (1995). Control over bureaucracy: cultural theory and institutional variety. *Journal of Public Policy*, 15(3), 207-230.
- Hood, C., James, O., Peters, G., & Scott, C. (2004). Controlling Modern Government: Variety. *Commonality and Change*. Cheltenham: Elgar.
- Hood, C., James, O., Scott, C., Jones, G. W., & Travers, T. (1999). *Regulation inside government: Waste watchers, quality police, and sleaze-busters*. Oxford University Press.
- Hornsey, M. J., Harris, E. A., Bain, P. G., & Fielding, K. S. (2016). Meta-analyses of the determinants and outcomes of belief in climate change. *Nature Climate Change*, 6(6), 622.
- Huxster, J. K., Carmichael, J. T., & Brulle, R. (2015). A Macro Political Examination of the Partisan and Ideological Divide in Aggregate Public Concern over Climate Change in the US between 2001 and 2013.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4(1), 1-15.
- Jackson, J., Allum, N., & Gaskell, G. (2006). Bridging levels of analysis in risk perception

- research: the case of the fear of crime. In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7(1), pp. Art-20.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
- Johnson, E. J., & Tversky, A. (1983). Affect, general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20-31.
- Kahan, D. M., Jenkins Smith, H., & Braman, D. (2011). Cultural cognition of scientific consensus. *Journal of Risk Research*, 14(2), 147-174.
- Kahan, D. M., Peters, E., Wittlin, M., Slovic, P., Ouellette, L. L., Braman, D., & Mandel, G. (2012). The polarizing impact of science literacy and numeracy on perceived climate change risks. *Nature climate change*, 2(10), 732-735.
- Kaiser, F. G., & Gutscher, H. (2003). The Proposition of a General Ver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redicting Ecological Behavior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3), 586-603.
- Keller, C., Bostrom, A., Kuttschreuter, M., Savadori, L., Spence, A., & White, M. (2012). Bringing appraisal theory to 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A review of conceptual approaches of the past 40 year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Risk Research*, 15(3), 237 - 256.
- Kellstedt, P. M., Zahran, S., & Vedlitz, A. (2008). Personal efficacy,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attitudes toward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8(1), 113-126.
- Kim, S. Y., & Wolinsky-Nahmias, Y. (2014). Cross-national public opinion on climate change: The effects of affluence and vulnerability.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4(1), 79-106.
- Kobbeltved, T., Brun, W., Johnsen, B. H., & Eid, J. (2005). Risk as feelings or risk and feelings? A cross lagged panel analysis. *Journal of Risk Research*, 8(5), 417-437.
- Krimsky, S., & Golding, D. (1992). *Social theories of risk*. Westport and London: Praeger.
- Lai, V. T., Hagoort, P., & Casasanto, D. (2012). Affective primacy vs. cognitive primacy: Dissolving the debate. *Frontiers in Psychology*, 3, 243.
- Lazarus, R. S. (1981). A cognitivist's reply to Zajonc o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6, 222 - 223.
- Lazarus, R. S. (1984). On the primacy of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24 - 129.

- Lazarus, R. S. (1991).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8), 819-834.
- LeDoux, J. E. (1996). *The emotional brain*. New York: Simon & Schuster.
- Leiserowitz, A. (2006).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affect, imagery, and values. *Climatic change*, 77(1-2), 45-72.
- Lerner, J. S., Gonzalez, R. M., Small, D. A., & Fischhoff, B. (2003). Effects of fear and anger on perceived risks of terrorism: A national field experiment. *Psychological Science*, 14(2), 144-150.
- Lodge, M., & Wegrich, K. (2011). Governance as contested logics of control: Europeanized meat inspection regimes in Denmark and German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8(1), 90-105.
- Loewenstein, G. F., Weber, E. U., Hsee, C. K., & Welch, N. (2001). Risk as feelings.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67.
- Lorenzoni, I., Jones, M., & Turnpenny, J. R. (2007). Climate change, human genetics, and post-normality in the UK. *Futures*, 39(1), 65-82.
- Lorenzoni, I., Nicholson-Cole, S., & Whitmarsh, L. (2007). Barriers perceived to engaging with climate change among the UK public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7(3-4), 445-459.
- Lorenzoni, I., & Pidgeon, N. F. (2006). Public views on climate change: European and USA perspectives. *Climatic change*, 77(1-2), 73-95.
- Lowe, T., Brown, K., Dessai, S., de França Doria, M., Haynes, K., & Vincent, K. (2006). Does tomorrow ever come? Disaster narrative and public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5(4), 435-457.
- Mailbach E. W., Leiserowitz A, Roser-Renouf C, & Mertz C. K. (2011). Identifying Like-Minded Audiences for Global Warming Public Engagement Campaigns: An Audience Segmentation Analysis and Tool Development. *PLoS ONE* 6(3): e17571. doi:10.1371/journal.pone.0017571.
- Marx, S. M., Weber, E. U., Orlove, B. S., Leiserowitz, A., Krantz, D. H., Roncoli, C., & Phillips, J. (2007). Communication and mental processes: Experiential and analytic processing of uncertain climate informati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7(1),

47-58.

- McCright, A. M., & Dunlap, R. E. (2011). The politicization of climate change and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s views of global warming, 2001-2010. *The Sociological Quarterly*, 52(2), 155-194.
- McNeeley, S. M., & Lazrus, H. (2014). The cultural theory of risk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eather, Climate, and Society*, 6(4), 506-519.
- Meijer, A., Boon, W., & Moors, E. (2013). Stakeholder engagement in pharmaceutical regulation: connecting technical expertise and lay knowledge in risk monitoring. *Public Administration*, 91(3), 696-711.
- Meijnders, A. L., Midden, C. J., & Wilke, H. A. (2001). Role of negative emotion in communication about CO2 risks. *Risk Analysis*, 21(5), 955-955.
- Milfont, T. L. (2012). Cultural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engagement. In S. D. Clayton (Ed.), *Oxford library of psychology. The Oxford handbook of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psychology* (pp. 181-200).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Milton, K. (1996). *Environmentalism and Cultural Theory: Exploring the Role of Anthropology in Environmental Discourse*. Routledge, New York.
- Myers, T. A., Nisbet, M. C., Maibach, E. W., & Leiserowitz, A. A. (2012). A public health frame arouses hopeful emotions about climate change. *Climatic Change*, 113(3-4), 1105-1112.
- Nauta, M. J., Fischer, A. R., Van Asselt, E. D., De Jong, A. E., Frewer, L. J., & De Jonge, R. (2008). Food safety in the domestic environment: the effect of consumer risk information on human disease risks.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8(1), 179-192.
- Nelkin, D. (1995). Science controversies: the dynamics of public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444-456.
- Olson, M. (1965). *Th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O'Connor, R. E., Bord, R. J., & Fisher, A. (1998). How information about likely accomplishments affects willingness to sacrifice to reduce global warming. *Journal of Risk Research*, 1(3), 197-207.

- O'Neill, S., & Nicholson-Cole, S. (2009). 'Fear won't do it': promoting positive engagement with climate change through visual and iconic representations. *Science Communication*, 30, 355 - 379.
- O'Riordan, T., & Jordan, A. (1999). Institutions, climate change and cultural theory: towards a common analytical framework. *Global Environmental Change*, 9(2), 81-93.
- Palmer, C. G. (1996). Risk perception: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view and the risk construct. *Risk Analysis*, 16(5), 717-723.
- Peters, E. M., Burraston, B., & Mertz, C. K. (2004). An emotion based model of risk perception and stigma susceptibility: Cognitive appraisals of emotion, affective reactivity, worldviews, and risk perceptions in the generation of technological stigma.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4(5), 1349-1367.
- Peters, E., & Slovic, P. (1996). The Role of Affect and Worldviews as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16), 1427-1453.
- Pendergraft, C. A. (1998). 'Human dimensions of climate change: Cultural theory and collective action'. *Climate Change*. 39, 643 - 666.
- Poortinga, W., & Pidgeon, N. (2003). *Public perceptions of risk, science and governance*. Centre for Environmental Risk, University of East Anglia, Norwich, UK.
- Poortinga, W., & Pidgeon, N. F. (2003). Exploring the dimensionality of trust in risk regulation.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3(5), 961-972.
- Rayner, S. (1984). Radiation hazards in hospital: A cultural analysis of occupational risk perception. *RAIN*, (60), 10-12.
- Rayner, S., & Cantor, R. (1987). How Fair Is Safe Enough? The Cultural Approach to Societal Technology Choice. *Risk analysis*, 7(1), 3-9.
- Rippl, S. (2002). Cultural theory and risk perception: a proposal for a better measurement. *Journal of Risk Research*, 5(2), 147-165.
- Roberts, R. C. (2003). *Emotions: An essay in aid of mor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eser, S. (2007). Ethical intuitions about risks. *Safety Science Monitor*, 11(3), 1-13.
- Roeser, S. (2009). The relation between cognition and affect in moral judgments about risk.

- The Ethics of Technological Risks*, 182 - 201.
- Roeser, S. (2010). *Moral emotions and intuitions*. Springer.
- Roeser, S. (2012). Risk communication, public engagement, and climate change: A role for emotions.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32(6), 1033-1040.
- Rogers, R. W. (1985). Attitude change and information integration in fear appeals. *Psychological Reports*, 56(1), 179-182.
- Scherer, K. R., Schorr, A., & Johnstone, T (2001).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Theory, research, appl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artz, N., & Clore, G. L. (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13 - 523.
- Shanahan, M., (2007). *Talking about a revolution: Climate change and the media* (IIED Briefing).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Siemer, M., Mauss, I., & Gross, J. J. (2007). Same situation-different emotions: How appraisals shape our emotions. *Emotion*, 7(3), 592 - 600.
- Sheppard, S. R. (2005). Landscape visualisation and climate change: the potential for influencing perceptions and behaviour.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8(6), 637-654.
- Shi, J., Visschers, V. H., & Siegrist, M. (2015). Public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The importance of knowledge and cultural worldviews. *Risk Analysis*, 35(12), 2183-2201.
- Sjöberg, L. (1996). A discuss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psychometric and cultural theory approaches to risk perception.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68(3-4), 219-225.
- Sjöberg, L. (2007). Emotions and risk perception. *Risk management*, 9(4), 223-237.
- Slovic, P. (1992). Perception of risk: Reflections on the psychometric paradigm. In Krimsky, S & Golding, D (Eds.). *Theories of Risk*. (pp.215-228). New York: Praeger.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2), 311-322.
- Slovic, P. and Peters, E. (1998). 'The importance of worldviews in risk perception', *Risk Decision and Policy*, 3, 165 - 170.

- Slovic, P., & Peters, E. (2006). Risk perception and affec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6), 322-325.
- Smith, C. A., & Kirby, L. D. (2001). Toward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appraisal theory. In K. R. Scherer, A. Schorr, & T. Johnstone (Eds.), *Series in affective science.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Theory, methods, research* (pp. 121-138).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S. M., Haugtvedt, C. P., & Petty, R. E. (1994). Attitudes and recycling: does the measurement of affect enhance behavioral prediction?. *Psychology & Marketing*, 11(4), 359-374.
- Smith, N., & Leiserowitz, A. (2012). The rise of global warming skepticism: Exploring affective image associations in the United States over time.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32(6), 1021-1032.
- Steg, L., & Sievers, I. (2000). Cultural theory and individual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risks. *Environment and Behavior*, 32(2), 250-269.
- Stevenson, K. T., King, T. L., Selm, K. R., Peterson, M. N., & Monroe, M. C. (2018). Framing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to prompt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 among adolescents from agricultural communitie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4(3), 365-377.
- Sundblad, E. L., Biel, A., & Gärling, T. (2007). Cognitive and affective risk judgments related to climate chang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 97 - 106.
- Swim, J. K., Stern, P. C., Doherty, T. J., Clayton, S., Reser, J. P., Weber, E. U., & Howard, G. S. (2011). Psychology's contributions to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global climate change. *American Psychologist*, 66(4), 241.
- Tansey, J. (2004). Risk as politics, culture as power. *Journal of Risk Research*, 7(1), 17-32.
- Thomas, E. F., McGarty, C., & Mavor, K. I. (2009). Transforming "apathy into movement": The role of prosocial emotions in motivating action for social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3(4), 310-333.
- Thompson M (1980). An Outline of the Cultural Theory of Risk. IIASA Working Paper. IIASA, Laxenburg, Austria: WP-80-177.

- Thompson, M., Ellis, R. & Wildavsky, A. (1990) *Cultural Theory*. Boulder, CO: Westview Press.
- Townsend, E., Spence, A., & Knowles, S. (2013). Investigating the operation of the affect heuristic: Is it an associative construct? *Journal of Risk Research*, 17(3), 299 - 315.
- Turner, M. M. (2007). Using emotion in risk communication: The anger activism model. *Public Relations Review*, 33(2), 114-119.
- Unsworth, K. L., & Fielding, K. S. (2014). It's political: How the salience of one's political identity changes climate change beliefs and policy support.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7, 131-137.
- Van der Linden, S. (2015). The social-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s: Towards a comprehensive model.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1, 112-124.
- Weber, E. U. (2006). Experience-based and description-based perceptions of long-term risk: Why global warming does not scare us (yet). *Climatic change*, 77(1-2), 103-120.
- Weber, E. U. (2010). What shapes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3), 332-342.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806-820.
- Whitmarsh, L. (2011). Scepticism and uncertainty about climate change: Dimensions, determinants and change over tim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2), 690-700.
- Wildavsky, A., & Dake, K. (1990). Theories of risk perception: Who fears what and why?. *Daedalus*, 41-60.
- Witte, K. (1993). Message and conceptual confounds in fear appeals: The role of threat, fear, and efficacy. *Southern Journal of Communication*, 58(2), 147-155.
- Zagzebski, L. (2003). Emotion and moral judgment.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6(1), 104-124.
-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2), 151-175.
- Zhao, X., Leiserowitz, A. A., Maibach, E. W., & Roser-Renouf, C. (2011). Attention to science/environment news positively predicts and attention to political news

negatively predicts global warming risk perceptions and policy support. *Journal of Communication*, 61(4), 713-731.

최초 투고일 2019년 4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9년 7월 31일
논문 수정일 2019년 8월 5일

Abstract

The Effects of Cultural Bias on Climate Change Policy Compliance and Support

Mediating Effects of Risk Perception, Emotion, and Efficacy

Soo Jin Kim

Research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Yungwook Kim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aim at articulat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climate change policy compliance and support. Cultural bias and risk perception were propo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d the role of negative emotions induced by cultural biases and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s. Cognitive appraisal theory was adopted as theoretical background. Also the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emotional and cognitive variables on climate change policy compliance and support. As a result, it found that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policy complianc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cultural bias. The greater the egalitarianism, the less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risk and the higher the policy compliance. And the greater the fatalism, the less awareness of climate change risk and policy compliance. In addition, negative emotions did not directly affect policy support, but increased self-efficacy and indirectly increased policy compliance. This study incorporating cultural bias and risk perception as critical variables in policy support,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provides a strategic communication direction for policy compliance and support by understanding Koreans' perceptions toward climate change.

Keywords: cultural bias,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policy compliance, emotion, efficacy